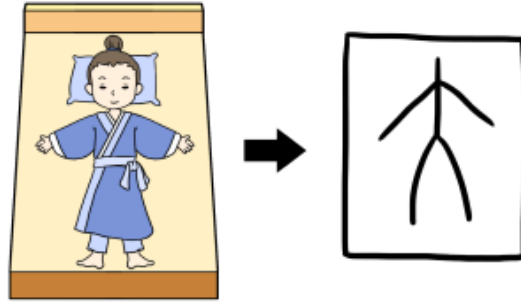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大

인할 인

因자는 '인하다'나 '말미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因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大(큰 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因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因자의 본래 의미는 '자리'였다. 그러나 후에 因자가 '인하다'나 '말미암다'와 같이 어떠한 원인과 이유를 뜻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艹(풀 초)자가 더해진 茵(자리 인)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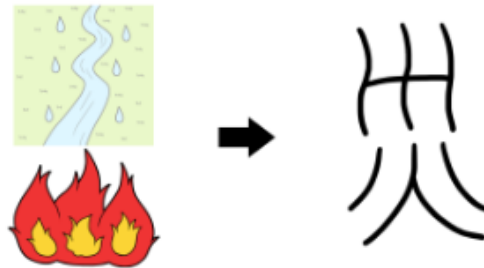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災

재앙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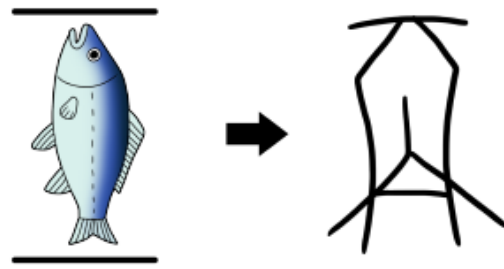
災자는 '재앙'이나 '화재', '죄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災자는 火(불 화)자와 災(내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앙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중에서도 '화재'와 '홍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다. 災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火자는 '화재'를 災자는 '홍수'를 뜻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火자와 災(집 면)자가 결합한 災자가 쓰인다.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再

두 재:

再자는 '재차'나 '거듭', '다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再자는 冂(멀 경)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멀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再자의 갑골문을 보면 물고기의 입과 꼬리 부분에 획이 하나씩 𠂔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수면 위와 아래를 표현한 것이다. 물고기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물 위로 입을 내밀어 숨을 쉬곤 한다. 再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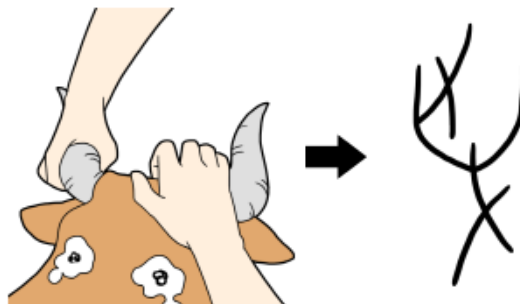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爭

다툼 쟁

爭자는 '다투다'나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爭자는 爪(손톱 조)자와 又(또 우)자, 丿(갈고리 꺾)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爪자는 '손톱'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손'의 동작으로 쓰였다. 갑골문에 나온 爭자를 보면 소의 뿔을 놓고 서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소뿔 대신 쟁기가 그려져 있었지만 서로 다투고 있다는 뜻은 같다. 爭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의미에서 '다투다'나 '경쟁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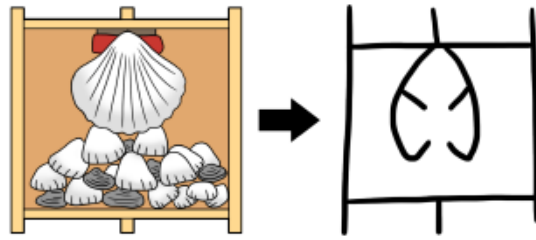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貯

쌓을 저:

貯자는 '쌓다'나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貯자는 貝(조개 패)자와 宀(쌓을 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宀자는 본래 금고의 일종을 그린 것으로 '쌓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貯자의 갑골문을 보면 네모난 상자 안에 貝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금고에 돈이나 재물을 넣어놨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貯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재물을 금고에 쌓아놓거나 보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쌓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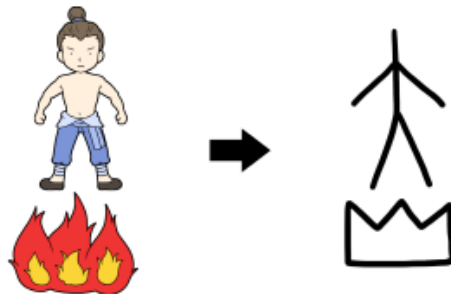
貯

소전

貯

해서

회의문자①



赤

붉을 적

赤자는 '붉다'나 '비다', '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赤자는 大(큰 대)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의 赤자에서는 大자와 火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갑골문에 나온 赤자를 보면 불 위에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赤자는 사람을 불에 태우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赤자에 '멀하다'나 '물살시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赤자는 사람이 불을 쬔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赤자에 '붉다'나 '붉은색'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명확한 해석이 없지만 赤자는 사람과 불을 함께 그린 것으로 '붉다'나 '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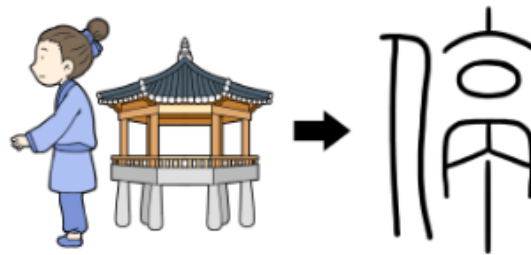
赤

소전

赤

해서

회의문자 ①



停

머무를
정

停자는 '머무르다'나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停자는 人(사람 인)자와 亭(정자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亭자는 간단하게 지어진 정자를 그린 것으로 '정자'나 '여인숙'이라는 뜻이 있다. 정자나 여인숙은 여행객들이 잠시 쉬거나 숙박했던 곳을 말한다.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를 뜻하는 亭자에 人자가 더해진 停자는 '사람이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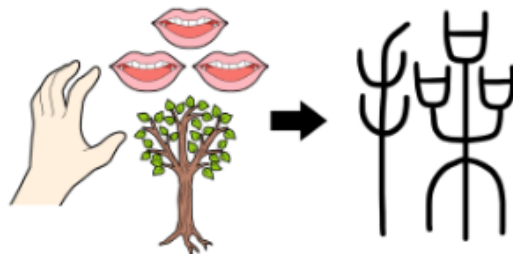
停

소전

停

해서

회의문자 ①



操

잡을
조(:)

操자는 '잡다'나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操자는 手(손 수)자와 梟(올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梟자는 나무 위에 새들이 떼 지어 지저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梟자에 手자를 결합한 操자는 손으로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새들은 사람의 인기척에 쉽게 날아가곤 하니 잡을 때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操자는 '잡다'라는 뜻 외에도 '조심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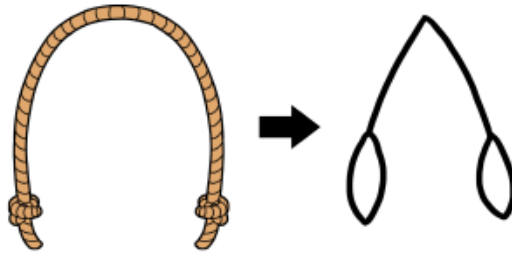
操

소전

操

해서

회의문자①



終

마칠 종

終자는 '끝나다'나 '마치다',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終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冬(겨울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冬자는 새끼줄 양 끝에 매듭을 묶어 줄이 풀리지 않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의미에서 '끝나다'나 '마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冬자가 '겨울'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糸자를 더한 終자가 '끝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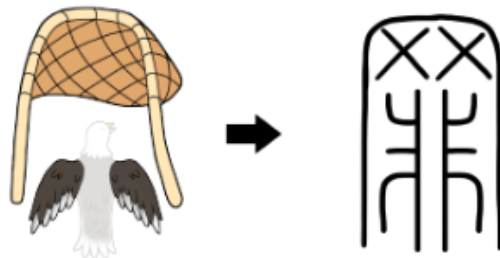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罪

허물 죄:

罪자는 '허물'이나 '죄', '잘못'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罪자는 网(그물 망)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허물'이나 '죄'라는 뜻은 𠂔(허물 죄)자가 쓰였었다. 𠂔자는 自(스스로 자)자와 辛(매울 신)자가 결합한 것으로 고대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코를 잘라 처벌한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 𠂔(𠂔)자가 '황제'를 뜻하는 皇(임금 황)자와 𠂔 비슷하여 진시황 때는 이를 피해 새로이 만든 글자가 바로 罪자이다. 罪자는 '아니다'나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非자에 网자를 결합한 것으로 '잘못(非)을 저지른 사람을 잡는다(网)'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소전



해서